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대대적 손질

미트저널주 강동현 기자

오는 2011년부터 부산물을 포함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12자리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 포장박스에는 바코드 형식의 유통식별번호표가 부착된다. 유통식별번호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현행 수입쇠고기 포장 박스에 부착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기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서 서류 작성·보관시 B/L(선하증권) 번호를 포함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보관·판매시 B/L 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던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11년 본 시행 이후 호주, 캐나다 등이 시행하고 있는 소 이력제와 연계해, 산지 생산정보까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바코드 방식에서 RFID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이력제 근거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제도도 포함,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도 12~13의 영업장 준수사항을 근거로 관리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쇠고기 판매시 가격 표지판에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토록 한 기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행예정시기인 오는 2010년 12월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인어서 향후 정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법제화 찬반 의견 엇갈려

지난 9월 11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학용(한나라당 경기 안성) 주최로 열린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용어와 판매단계까지의 연계 방식, 유통식별번호 부여, 시행시기와 법안발의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정책과 관련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농식품부는 용어 교체, 영세 정육점들의 고정비 및 노동력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수용, 적극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동시에 시기가 촉박해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과 국내산과 수

입산 유통이력제를 분리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오는 2010년 12월말까지 제도를 마무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오는 2010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범실시하며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수입육업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노경상 축산경제원 원장을 좌장으로 최영찬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남윤석 한결 LS 부장,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장, 이학교 한경대 교수, 유보희 (사)한국수입육협회 사무총장, 한수현 축산기업중앙회 전무가 토론자로 각각 참석했다.

■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용어 변경 공감대 형성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한 목소리로 지적된 부분은 바로 수입쇠고기 이력관제의 명칭 사용과 관련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도 이제 정착 초기 단계에서 수입육 쇠고기 이력제를 동시에 홍보하면 자칫 용어의 선택으로 인해 전체 이력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보다는 유통경로추적제도 등 차별화된 용어가 필요하다"는 게 토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상수 과장은 "토론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적당한 용어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면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와 인

지도, 선호도 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현재도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와 관련 식별번호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은 극소수일 뿐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정부정책을 믿고 한우고기를 구분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선호도 반감 등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의 쇠고기 이력제도의 기준법이 각각 현행처럼 분리돼 운영돼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력제가 돼지고기, 닭고기와 함께 타 축종으로 확대될 경우 그 때마다 법이 분리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와 함께 시기에 맞춰 부작용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한 뒤 중

분한 홍보와 업계의 의견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이 과장은 “이미 제도에 대한 검토기간은 충분히 설정됐고 6개월 이상의 시범사업도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소규모 정육점들이 쇠고기 이력제를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가능한 추가비용 없이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수입육업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수입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고 이후 세부법안을 만들 때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제도 변경(안) 주요내용 및 쟁점

구분	현행(축가법시행규칙)	개정 법률안	쟁점사항
수입/검역 단계			
유통이력 식별단위	• B/L 번호	• '유통식별번호'란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식별 번호 체계	• 유통식별 단위를 새로운 번호체계(12자리) 개선 고려 - 바코드 인쇄 용이성, 국내개체 식별번호와 호환성, 정보 확장성 등
유통식별 번호의 신청 부착	• <신설> • 한글표시사항의 부착	• 수입업자는 쇠고기 수입신고 이전에 유통식별번호를 농식품부 장관에 신청 • 농식품부장관은 신청된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유통식별번호를 부여 • 수입업자는 부여받은 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유통식별표를 부착	• 유통식별번호가 포함 된 유통식별표 부착
수입신고	• B/L번호 단위	• 수입업자 축가법 제 15조에 따라 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수입 신고	• 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수입 신고
거래내역 신고 단계			
거래신고	• 거래내역 off-line 관리	• <수입업자> 유통식별 쇠고기 수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유통식별 쇠고기를 포장처리할 때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	• 관계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을 요청, 전자계산서 등을 연계 거래내역 자동관리
거래기록 & 확보	•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통식별번호마다 유통관리 대장을 기록-수입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거래용명 등 • 유통관리매장의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시, 시정, 권고 등 필요할 조치	• 수괴원의 수입쇠고기 신고관련 정보가 자동화 된 전자적 처리되는 방식으로 관리 • 유통현황 · 이력 실시간 파악 가능 • 영업자 시스템과 정보 연계를 지원
변경신고	• <신설>	• <수입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유통관리매장의 기록사항이 변경 된 경우 변경사항 신고	
국내산 · 수입산 공표사항 정보공개 및 보호	•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비자가 쇠고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장 등 지도 • <관계자> 법인 ·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 소비자의 정보 접근 용이하게 하고 • 영업자의 비밀정보는 보호
이력관리 시스템	•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력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용	
업무협조	•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협조를 통해 타 기관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 관세청, 국세청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이력관리
위해차단 인증	• <신설>	• <식육판매업자> 영업장이 위해 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 • 인증업소에 대해 1년간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보고 및 출입 · 검사 대상에서 제외	• 이력관리시스템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